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38호> 2019년 7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오이타현 소식>

「One Rugby, One Oita 페스티벌 TRY in Oita」 개최



럭비 월드컵 2019 일본 대회 기간 중 *팬 존 회장인 오이타 이코이 노미치 광장에서 ‘One Rugby, One Oita 페스티벌 TRY in Oita’가 개최되었습니다.

럭비 체험 어트랙션과 스테이지 퍼포먼스, 오이타에서 시합하게될 6개국 및 지역의 대표 요리를 맛 볼 수 있는 부스 등 다양하게 마련된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 약 27,000명이 찾아주셨습니다.

또 당일에는 2,000여명의 인원이 ‘TRY!’라고 쓰여진 응원 굿즈를 손에 들고 오이타 시내 중심부를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팬 존 : 대회 기간 중 퍼블릭 뷰잉과 먹거리 등을 제공하며 스테이지 이벤트 등이 열리는 회장

<분고타카다시 소식>



What`s up, OITA! 한국어판 제32호(2018.11)부터 현내 각 시정촌의 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케타시에 이어 이번 호는 분고타카다시로부터 온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쇼와노마치’ ~60년 전의 상점가로 시간 여행~



1960년대를 재현한 상점가와 테마파크 쇼와로망창고로 이루어진 쇼와노마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쇼와노마치 손바닥 안내인(다언어 대응)’, 지역 고등학생들이 만든 쇼와노마치 맛집 지도(영문)를 준비해두었습니다.

▶ 쇼와노마치 손바닥 안내인 URL : www.showanomachi.com/shop_movies

‘꽃과 아트의 곶 나가사키바나’ ~150만송이의 해바라기~

나가사키바나에선 봄에는 유채꽃, 여름엔 해바라기, 가을엔 코스모스의 꽃이 활짝 핀다. 또 존 레논의 부인으로 유명한 오노 요코 작가의 작품과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최정화 작가의 작품 그리고 국내 아티스트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는 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는 ‘해바라기 페스타’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분고타카다시는 이주, 정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빈 집 활용 및 이주자를 위한 보조금 등의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산, 온난한 기후, 역사깊은 문화 등 ‘살고싶은 시골 랭킹’에서 전국 유일하게 7년 연속 3위 안에 선정되었습니다.

<분고타카다시 지역활력창조과>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38호> 2019년 7월 발행

오이타 속 한국인을 만나다! 주식회사 스즈키 영업기획부 권기웅, 이보슬



1.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기웅이라고 합니다. 2003년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교(APU)에 입학해 2008년에 졸업 후 바로 스즈키에 입사하여 근무한지 11년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보슬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017년 4월에 입사하여 올해로 3년차를 맞이했습니다.

2. 회사와 맡고계신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주식회사 스즈키는 1946년에 창립된 반도체 전문 상사입니다. 현재는 로지스틱 사업, 아웃소싱 사업, 헬스케어 사업 등으로 분야를 계속 넓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산업청의 추천 사업으로 규슈 대학과 협력하여 동충하초를 인공 재배한 후 대만으로 수출해 건강 보조 식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또 오이타 대학 의학부, 우스키시 등과 협력하여 만드는 인지증 방지 GPS 시계 개발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총 사원은 180여명으로 한국인은 저희를 포함해 동경 영업소 등 전국 각지에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사 영업기획부에 소속되어 해외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고 고객 니즈에 따라 지원해드리며, 고객과 메이커 사이의 중간 역할,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습니다. 또 한국 업체와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미팅을 하거나 공장 견학, 신규 업체 발굴을 위한 한국 출장도 꽤 잦은 편이고 매번은 아니지만 함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오이타에서 취업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교는 고등학교에서 열렸던 설명회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일본어를 못해도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커리큘럼이 마음에 들어서 유학을 결심했고 APU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당시엔 리먼쇼크로 일본 취업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진행됐던 기업 설명회와 면접 등에 자연스럽게 참가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일본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마침 주식회사 스즈키에서 한국인을 필요로한다는 정보를 듣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지금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학에서 일어일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요즘 한국 취업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편이라 일본으로 눈을 돌리면서 알게된 해외 취업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IT기업 계열이었기 때문에 먼저 한국에서 6개월간 IT기업 관련 지식, 컴퓨터 관련 내용을 공부했고 이후 오이타현 나가츠에서 합숙하며 실전에 필요한 비즈니스 지식과 이력서 작성법, 모의 면접과 매너 등과 관련된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르토홀에서 개최된 규슈 기업 설명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 주식회사 스즈키의 면접을 보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38호> 2019년 7월 발행

오이타 속 한국인을 만나다! 주식회사 스즈키 영업기획부 권기웅, 이보슬

4. 일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대학교에서 4년간 일본어를 공부했지만 수업에서 듣는 것과 사회에 나와서 쓰는 전문 용어, 비즈니스 일본어는 또 다르기 때문에 초반에는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당시 이 회사에 입사한 외국인 제가 최초였기 때문에 직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저도 매일 신문을 읽고 빠짐없이 뉴스를 들으며 공부했던 덕분에 사회 생활 1년만에 일본어가 더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부품을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어로도 처음 듣는 용어가 많았고 일본어뿐 아니라 일본인들과의 업무 환경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어려웠는데, 직원분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무엇보다 권기웅 선배님께서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면과 생활면에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든든했습니다. 또 저는 버스를 타고 통근을 하는데 배차 시간이 적은 편이라 버스 시간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주실 정도로 회사에서 많이 배려해주셔서 아직까지 크게 힘든 점은 없습니다.

5. 오이타의 매력과 좋아하는 장소를 소개해주세요.



제 고향인 경기도 분당은 사람도 차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오이타는 평화롭고 가까이 바다와 산이 있어 공기도 깨끗하고 자연 환경이 조화로워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출장으로 일본 전국을 돌아봤지만 오이타는 특히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드는 요리가 많고 세키 전갱이, 세키 고등어회와 토리텐도 맛있어서 정말 좋아합니다.

지인이 오이타를 방문하면 아무래도 온천을 많이 데리고가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코코노에에 있는 산케이노유라는 온천을 추천합니다. 구쥬산을 바라보는 노천탕의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서 손님이나 지인이 찾아오면 꼭 안내해드리는 곳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는데 오이타는 너무 붐비지도 또 너무 한적하지도 않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고 저도 카라야게랑 토리텐을 좋아합니다. 아직 맛보지 못한 향토 요리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오이타에 있으면서 다양하게 먹어보고 싶습니다.

오이타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우스키 성터입니다. 취업하고 오이타에 와서 벚꽃놀이를 하기 위해 우스키 성터에 갔었는데 만개한 벚꽃들이 너무 예뻐서 올해도 또 보고싶어 찾아갔었습니다. 우스키 성터는 제가 일본에 와서 처음 벚꽃놀이를 했던 곳이라 더욱 기억에 남아있어서 나중에 친구가 놀러오면 데려가서 아름다운 벚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6.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영주권을 취득해서 오이타에 내 집을 마련하는게 목표입니다. 또 업무면으로는 한국에 스즈키 지점을 세워서 저희 회사가 세계로 더 넓혀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배우는 입장으로 현재도 보조적인 역할이 많은데 앞으로 저에게 맡겨진 일을 잘 처리하고 서포트뿐만 아니라 한사람 몫을 충분히 해내는 것이 제 목표이자 계획입니다.